

가족을 위한 교육감 COVID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ASD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주로 진행되는 이 업데이트 편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 힘쓰는 모든 ASD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학교와 가족/지역사회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해 질문하고, 숙제를 검토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랑으로 자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교육구 행정 사무소의 많은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 대체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교사가 제게 보낸 쪽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의 1학년 학생은 "엄마, 아빠, 한나, 많이 사랑하고, 엄마, 아빠, 한나도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똑똑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를 권해요."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학교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힘들고, 똑똑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부족 문제와 COVID-스트레스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이 시기에 ASD 직원들이 보여준 헌신은 이례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자녀의 학교 팀에게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완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모든 ASD 건물 출입을 위한 마스크 필수 착용을 연장합니다. 1월 12일 기준으로 지난 7일 동안 10만 명당 총 신규 사례가 2,21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을 학부모 선택으로 제시하고자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숫자는 100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업데이트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ASD는 새로운 CDC 지침을 따라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학교가 받았기에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학생이나 직원이 양성 확진을 받았을 경우 증상 첫 발현일 또는 양성 확진일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5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 5일 후, 학생이나 직원은 해열제 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이 호전되면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감 COVID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자녀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전체 지침과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지침은 ASD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가정 내 COVID-19 건강 진단](#)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성 테스트 추적을 하지 않기로 한 주 정부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학교 간호사의 행정 업무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ASD는 가정에 통지되는 서면 통지를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의 학년 단위 COVID-19 사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포함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학부모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버스 노선 중단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운송부는 COVID-19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부 버스 노선 그룹을 3주간 중단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비상 방안입니다. 행정부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그룹과 COVID-19 운송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우선순위는 대면 학습을 통해 학교를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가능한 가상 학습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선택 사항으로는 지지하지만, 이것이 모든 학생의 학습과 웰빙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Jr.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 연장된 주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경험하는 이때, "우리는 일시적 실망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나 비숍, 교육학 박사,
교육구 총책임자